김제 검산동 주민자치위, 사랑의 고구마 수확

김제시 검산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현철)는 21일 주민자치위원과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원교)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지역 소외된 이웃에 나눔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고구마 수확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난 사랑의 고구마 심기 행사를 통해 식재한 고구마를 수확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구슬땀을 흘렸지만,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된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임해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수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수확한 사랑의 고구마는 각 마을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약 8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현철 주민자치 위원장은 "이번 나눔행사를 통해 우리 검산동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공동체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랑의 김장 김치 담그기 행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따뜻한 나눔의 분위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재난대응 민간예찰단 시설 예찰활동 실시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로 구성된 재난예방 민간예찰단이 선제적 재난예방을 목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일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민간예찰단 예찰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는 민간예찰단, 안전보안관, 민간전문가, 산림녹지과, 재난안전과, 고산면 직원 등 20여명이 참가해 주변 시설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는 예찰활동을 가졌으며, 활동 후에는 예찰점검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이중복 기자

남원소방서, 버섯채취 안전사고 주의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가을철 버섯채취 시즌이 됨에 따라 입산객들의 산악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선선한 날씨로 버섯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면서 버섯을 채취하려는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야생버섯은 등산로를 벗어난 가파른 산이나 절벽 등에 있어 이를 채취하려다 실족사고나 조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 이동하기 △현재 위치를 알릴 수 있는 휴대전화 소지하기 △산악활동은 체력소모가 많기 때문에 물, 초콜릿 등 체력보충 음식휴대하기 △일몰 전 하산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 랜턴, 비상용품 소지하기 등이다.

백성기 소방서장은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산악사고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민의 장 수상자 6명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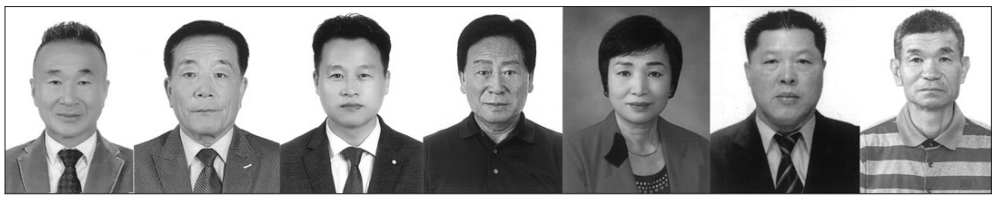
문화장 김병종 체육장 장진섭 효행장 양현수 봉사장 이미숙 산업노동장 임승규 애향장 박진균

남원시는 남원시민의 장은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고 각 부문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자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남원 최고영예의 상인 시민의 장 선정을 위해 지난 14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제28회 남원시민의 장 수상자 6개 부문 6명을 확정해 21일 발표했다.

△문화장 김병종(69세, 송동면)씨는 세계적인 화가이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역임하면서 꾸준한 재능과 작품기부 활동을 통해 남원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데 많은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체육장 장진섭(69세, 향교동)씨는 1997년 2월부터 남원시 체육회 부회장으로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체육인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원활한 대회 운영에 솔선수범했다. △효행장 양현수(32세, 향교동)씨는 지난 2016년에 모친의 루게릭병 발병 소식을 알고 퇴사하고 어머니의 간병을 시작, 긍정적 삶의 태도로 진정한 효를 실천하고 있다. △봉사장 이미숙(54세, 인월면)씨는 2002년부터 인월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시작하여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다. △산업노동장 임승규(67세, 대강면)씨는 춘향골농협조합장을 역임하면서 원예산업 육성과 유통활성화에 노력하고 통합마케팅조직의 규모화와 실현에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애향장 박진균(60세, 수지면)씨는 기업인이자 남원인으로 물심양면 고향을 위해 봉사하고, 향우들의 자긍심 고취와 고향발전에 공헌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남원시는 오는 10월 개최될 제30회 흥부제 기념행사 시 각 부문 수상자들을 초청해 시민의 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공익새마을장 소병종 공익새마을장 이경수 산업장 정승관 애향장 지용설 애향장 이옥재 효열장 채상석 효열장 김성환

임실군민의 장 수상자 확정

임실군이 지난 20일 제41회 임실군민의 장 수상자로 임실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한 7명을 최종 확정했다.

'임실군민의 장'은 임실군 거주자나 출신자 중 분야별로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로운 상이다.

△공익새마을장에는 관내 불우이웃 및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 중인 임실군자원봉사센터 소병종 센터장(임실읍)과 지속적인 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에 앞장선 (前)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 이경수 지회장(신평면)이 선정됐다. △산업장 분야는 임실치즈를 활용한 육가공 제품 생산·판매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브랜드 위상 정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친한F&B 정승관 대표(지사면)가 선정됐다. △애향장 분야는 재경임실군향우회 부회장으로 향우간의 화합뿐만 아니라 군민과 출향인사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향 사랑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지용설(재경향우회, 임실읍 출신) 씨와 재경전북도민회 여성부위원장으로 역임하면서 전북도민회까지 활동 반경을 넓혀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농특산물 판촉 행사 등에 헌신적으로 동참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옥재(재경향우회, 신평면 출신) 씨가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효열장 분야도 공동 수상자로 서울에서 귀촌 후 연로하신 부모님을 지극히 모셔 주위에 모범이 되고 있는 김성환(운암면) 씨와 홀로 계신 어머님을 극진히 봉양해 경로효친 사상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채상석(강진면) 씨가 선정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효자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진안 부귀면 여성적십자봉사회, 짜장면 나눔 봉사

진안군 부귀면 여성적십자봉사회(회장 이양임)는 21일 부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짜장면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지역주민들과 짜장면 함께 해요!'라는 주제로, 지역 어르신과 주민 2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이루어져다.

부귀 여성적십자봉사회는 매달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를 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도 그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역주민 고명수 씨의 짜장면 만들기 재능기부 봉사활동과 함께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최주연) 커피봉사단까지 참여해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다.

이양임 회장은 "지역주민들에게 맛있는 짜장면과 즐거운 추억을 함께 만들어 준 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나눔 봉사가 지역사회 분위기를 따뜻하게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현우 면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부귀여성적십자봉사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런 활동에 동참하는 이웃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정읍 상동지구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

정읍경찰서(서장 황동석) 상동지구대(대장 김원갑)는 나날이 보이스피싱범죄의 지능화와 피해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해 홍보 활동에 나섰다.

상동지구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편의점 등 상가,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에 나섰으나 최근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와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상동지구대에서는 재래시장 및 야영장 방문, 시민들을 상대로 피해예방 요령 등을 안내하며 예방 활동에 땀을 흘리고 있다.

김원갑 지구대장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변화된 범죄 유형과 피해예방을 위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재래시장 및 야영장 등 방문하여 시민들에게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경찰서, 스토킹 범죄 예방활동 펼쳐

남원경찰서(서장 김진형) 사매파출소(소장 김형곤)는 지난 20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예방을 위해 관내 축협 사매출장소 및 우체국, 면사무소, 농협, 초, 중학교 등에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및 감정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재강조 했다.

김전형 서장은 "최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은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